

## 청소년 상담의 현황과 전망

이 규 미

(서울 청소년 지도육성회 상담실장)

### 1. 서(序)

고민이 있을 때 선뜻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는 것이 익숙치않은게 우리의 현실이다. 혹 상담실을 찾아나섰다 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손에 잡히는 부언가를 얻어올 것을 먼저 염두에 두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담'이란 단어는 전문가를 찾아가 정보를 얻거나 자문을 얻는 쪽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상담센터가 곳곳에 생겨나고 나뉘대로 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정신건강 차원에서 혹은 복지차원에서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엔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 상담이라는 전문분야를 개척, 청소년과 그들을 지도하는 부모님에 대한 서비스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담실의 수도 크게 늘어난 추세이다. 청소년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 보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 2. 청소년상담의 현황 및 전망

#### 1) 상담 세팅(setting)

33개의 청소년 단체가 모여 만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다. 협의의 회원단체 33개 중 필자가 속한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외에도 한국청소년연맹, 대한가족계회

협회, YMCA, 길스카웃, 홍사단등에 청소년상담실이 상설기구로 조직되어있다.

그외에 청협회원단체는 아니지만 활동이 많은 곳으로는 보라매청소년회관, 주부아동상담소, 시립청소년사업관등의 상담실을 꼽을 수 있으며 체육부 내에는 청소년종합상담실이 개설되어 실제 청소년을 지도하는 모든 곳에서 상담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전문가가 상담역할을 맡고있는 상담실이 상설기구로 조직되어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들 청소년상담실에는 심리학, 교육학 혹은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실무자들이 있으며 이들 중에는 직장근부 외에도 각종 학회 연구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가 하면 실무자외에 상담을 통한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은 사회인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원으로 활동중인 곳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에도 관련전공과목-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간호학등-을 전공하고 이러한 학문적 기초와 관련하여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형식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단기연수과정을 거친 후 상담역할을 맡게 되는 식이다. 대부분 보다 이용률이 높은 전화상담위주로 활동중이기 때문에 상담연수, 긴장해소와 공감반응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전개되기 마련이다. 전문상담위원을 요구에 맞게 확보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사회단체 현실로 볼 때 또는 고급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면에서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여러 단체에서 환영받고 있는 제도중의 하나이다.

육성회 같은 경우, 면접을 위주로 한 상담

활동에 주력하기 때문에 이들 자원봉사자의 선발조건으로 관련과목의 전공여부, 사전교육의 정도, 상담경험등을 들게 된다. 또한 위촉 받은 자원봉사자는 월 1회 있는 상담사례회의, 월 2회의 상담정보교환회의, 그밖의 상담보수교육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2) 내담자

청소년상담실을 찾는 사람은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 또는 그 측근이 될 수 있다. 1989년 본 상담실의 경우, 청소년이 혼자 상담실을 찾은 경우는 전 내담자의 53.24%, 부모님이 찾아온 경우 19.91%, 그리고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온 경우 22.15%로 나타나 있다.

청소년이 혼자 상담실을 찾은 경우와 부모가 상담실을 찾은 경우 내용에서 다소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는 진로문제, 성격, 정신건강 순이고 부모의 경우는 (청소년과 함께 온 경우 포함) 진로문제, 비행, 성격 순으로 나타나 있다. 부모가 상담실을 찾게되는 경우에는 비행등 표면적으로 문제행동이 나타난 경우가 큰 빈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54.36%), 친구나 타인의 권유로(20.36%), 114전화안내 소개로(7.61%) 상담실을 찾게 되었다고 답했는데 이에 따르면 내담자에 대한 접근은 활발한 대외활동에 의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실제 상담효과를 경험한 내담자의 소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연령층은 만 15세~18세가 전 내담자의 65.77%로, 반 이상이 고등학생 연령임을 알 수 있는데 현재의 신분은 학생, 단순히 무직이라고 답한 경우, 재수생등의 순으로 답하고 있으며 소수지만 검정고시준비생이나 근로청소년들이 그 뒤를 잇는다.

물론 내담자의 신분 분포의 차이는 상담실의 위치에 따른 차이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 3) 상담내용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방법에 따라 내용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전화를 매개로 한 경우 (주로 단회상담)는 성문제, 이성교제, 비행, 학업 순이며 면접상담의 경우는 진로문제, 성격, 비행, 가정생활 순으로 큰 빈도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주로 성에 대한 궁금증과 자신이 겪는 성적인 변화에 대한 문의 등인데 가끔 강한 성충동을 주체할 수 없어 저지른 실수에 대해 토로하는 전화도 많다. 청소년 상담분야중에서도 좀더 세분화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이며, 현재는 YMCA와 가족계획협회가 이에 주력하고 있다.

아무래도 한 개인 혹은 사회적으로 보다 문제삼게 되는 것은 청소년비행문제라 하겠다. 최근의 청소년 비행은 어떤 비사회적, 혹은 반사회적 행동의 일면을 보이는데서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양상을 띄고 있을 뿐 아니라 집단화의 경향이 강하며 가정의 지도적 영향력이 약한 특징을 갖고 있어 또 하나의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분야로 발전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부쩍 늘어난 약물남용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전문센터의 설립도 요구되고 있다.

## 4) 상담관련활동

청소년상담실의 활동은 (1) 상담홍보활동을 통한 내담자에의 접근, (2)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3) 상담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4) 상담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의 사회계몽활동 (5) 기타 청소년 문화발전을 위한 활동전개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의 특성,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시대흐름에 맞는 홍보활동 및 계몽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육성회상담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가지 홍보자료 뿐 아니라 1990년도 연말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는 청소년 연극공연 같은 것이 그 예라 하겠다.

그러한 활동 예 중의 하나로 소개할만한 것

이 1989년 7월부터 치안본부와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가 공동 추진해오고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이다. 이는 각 경찰서에서 단속대상이 되었으나 혼방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본래 취지는 일과성 비행일 가능성이 큰 불량행위 청소년들에 대해 법적인 조치 이전에 혼방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비행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관·민이 합동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기획, 실시는 상담실이 맡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심리극(psycho drama)과 심성개발수련(sensitivity training)이다. 그리고 대상자 중 보다 선도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해 일명 '자기탐구모임(본래는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모형)'이라는 집단상담을 사후 프로그램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는 청소년상담실의 주요기능의 하나라 할 수 있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5) 청소년상담의 전망

앞으로의 청소년상담활동은 개인면접과 집단상담 외에도 대사회 홍보활동에서 좀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다양한 홍보 혹은 계몽 프로그램이 개발될 전망이며, 체육부에서는 상담기구를 전국조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단체의 지원도 계획에 넣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기대해 볼만한 것은 청소년 성상담센터나 비행예방센터, 그리고 약물남용예방센터와 같이 특수하고 세분화된 분야를 위한 상담센터의 개설이다.

이러한 상담센터에서도 개인적 고민에 대한

상담 뿐 아니라 예방계몽활동에 주력, 수집된 정보를 사회에 전달하는 중간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성교육등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제시하는 역할도 기대해 볼만 하다.

### 3. 결(結)

청소년 문제가 주요 사회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어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있는 오늘날,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 문제예방을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단순히 청소년 단체의 구색맞추기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으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을 만큼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많은 실무자들이 연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한 청소년 상담활동은 다양한 접근방법의 개발과 함께 앞으로 더욱 발전해 갈 전망이다.

더우기 청소년상담활동은 개인면접 뿐 아니라 상담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사회계몽활동의 기능으로 더욱 중요한 몫을 해낼 것이다.

역으로 상담실무자들은 소극적인 활동자세에서 벗어나 대상자들의 의식, 문화, 생활에 근접하여 도움을 주려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사회사업학등의 탐구성으로 다각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상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모든 상담기구에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